

창사 62주년에 부처

광주일보가 창사 62주년을 맞았다. 1952년 광주일보는 '불편부당의 정론을 품다. 문화창달의 선봉에 선다. 지역개발의 기수가 된다.'는 3대 사시(社是)를 밝히며 세상에 태어났다. 호남 대표지로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민과 동고동락을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광주일보의 예순 두 해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혼탁한 지난 62년 세월이 그 만큼 힘들고 혼란했던 것이다. 6·25 전쟁과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88올림픽, 외환위기 등 격동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숱한 도전과 역경을 딛고 호남 대표 언론으로서 위상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덕분이었다.

광주일보는 창사 62년을 맞아 지역 대표지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혼탁한 나가야 할 난관이 많기 도 하지만 지금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10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국가 안위는 여전히 걱정스럽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미사일과 무인기 발사, 핵실험 등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은은 군부대를 시찰할 때마다 "전쟁은 사전에 광고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발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는 등 대공망이 뚫린 데다, 국가 정보의 중추기관인 국정원마저 존재감을 상실해 안보를 심히

국민의 삶도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만성화된 청년실업과 일자리 불안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고물가 등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국내외의 불확실성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공화국'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6일 진도 해상에서 일어난 여객선 침몰 참사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사고 역시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드러나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예 두고도 자중지간에 빠져 있다. 김한길·안철수 '투톱 체제'가 훈들리면서 개혁공천도 의문시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국회의원 5명의 특정후보 지지 선언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전남지역에서도 한 후보 층의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 향배가 여전히 악간 속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선거가 혼란과 지역 갈등,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푸념과 냉소로 일관하며 주저앉을 수는

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내년에 개막하는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지난해 첫 삽을 뜯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도 우리 모두의 뜻이다.

이제 광주일보는 창사 62년을 맞아 다시 웃음을 염미하고, 신발 끈을 조여 뛸 것이다. 지역의 올바른 협력과 지역 역량 결집 등 언론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인물을 뽑는데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호남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과는 과감히 맞설 것이다.

우리는 지난 62년의 성장(星霜) 동안 지역언론과 여론 형성을 선도해온 광주일보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다. 제 역할도 못하면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민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면서 지역민과 고락을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호남의 대표 언론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것이다.

광주일보 임직원은 불철주야 호남인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는 62년 전의 초심(初心)을 되새기고, 호남언론의 선구자로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것을 쟁취해온다. 애독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배전의 총고와 편지를 바라지 않는다.

지역언론의 선구자로서 역할 다향 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사건, 6·4지방 선거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 이념·계층 및 지역간의 갈등, 사회적 이슈마다 갈라서는 국론분열 양상은 또 다른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사실 지난 1년여 끊임없이 계속됐던 퇴행적인 행태는 박근혜 정부의 첫 정책 회의인 '대통합', '100%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진국 운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지역적으로 호남 사람들은 지난 1년여 답답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인사와 예산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완전히 비켜나 지역민은 낙후를 숙명처럼 여겨야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인구는 충청권에 주월당해 지역적인 판도마저 뒤바뀌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호남이 '뒷밭'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무기력한 데다 지방선거를 코앞

없는 일이다. 을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정치지형 변화에 염두를 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한다. 학연과 지역, 불법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지방을 망치게 했던 지난 20년의 지방자치 경험을 새겨야 한다.

특히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갈무리를 위해 지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역량을 모아야 한다. 호남고속철도 서울~광주 구간이 오는 12월 완공되고, 10여 년을 끌어온 국립 아시아문화전당도 10월

최진석의 횡설종설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이다

금요일 수업이 끝난 후, 한숨 돌리고 나서 부하면서도 나는 한국 사람 가운데 누가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이다'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돌아보면, 이전에도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 본 기억이 있다. 한국 사람에게서는 오늘 오후에 최고문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다.

칼 앤스퍼스는 그의 저작 '실존철학'(Existenzphilosophie, 1937)에서 "얼치기 철학은 현실을 떠나지만, 진정한 철학은 현실로 돌아온다"는 말을 한다. 철학을 잘 모르면 철학과 현실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만, 철학을 제대로 알면 철학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철학임을 안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철학이나 문화나 예술 자체가 현실임을 알기 어렵다. 철학이나 문화나 예술은 항상 구체적인 현실 너머의 어떤 것, 여분의 어떤 것,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한 유연하는 어떤 것으로 치부된다. 철학이나 철학의 친구들을 현실과 분리된 것으로 본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철학적 레벨에서 작동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적 레벨에서 작동하는 시선이란 어떤 것인가? 박물관에

부연해서 나는 한국 사람 가운데 누가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이다'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돌아보면, 이전에도 중국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 본 기억이 있다. 한국 사람에게서는 오늘 오후에 최고문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처음인 것 같다.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다.

칼 앤스퍼스는 그의 저작 '실존철학'(Existenzphilosophie, 1937)에서 "얼치기 철학은 현실을 떠나지만, 진정한 철학은 현실로 돌아온다"는 말을 한다. 철학을 잘 모르면 철학과 현실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지만, 철학을 제대로 알면 철학이 곧 현실이고 현실이 곧 철학임을 안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철학이나 문화나 예술 자체가 현실임을 알기 어렵다. 철학이나 문화나 예술은 항상 구체적인 현실 너머의 어떤 것, 여분의 어떤 것,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한 유연하는 어떤 것으로 치부된다. 철학이나 철학의 친구들을 현실과 분리된 것으로 본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철학적 레벨에서 작동하는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적 레벨에서 작동하는 시선이란 어떤 것인가? 박물관에

모, 자녀가 아파서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연 등 부모는 온통 자녀를 보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해바라기처럼 보인다.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젠가 원로 교무님 한 분이 부모에게 자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

나는 빛 받으려 온 자녀이고 또 하나는 빛 갚으려 온 자녀라고 한다. 빛 받으려 온 자녀는 부모가 일생을 짊어진다. 정신, 육신, 물질로 바치기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궁핍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빛 갚으려 온 자녀는 그 자녀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녀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녀와 깊은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는 어떤 부모는 늘 그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녀가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부

모, 자녀가 아파서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연 등 부모는 온통 자녀를 보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해바라기처럼 보인다.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젠가 원로 교무님 한 분이 부모에게 자

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

나는 빛 받으려 온 자녀이고 또 하나는 빛 갚으려 온 자녀라고 한다. 빛 받으려 온 자녀는 부모가 일생을 짊어진다. 정신, 육신, 물질로 바치기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궁핍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빛 갚으려 온 자녀는 그 자녀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녀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녀와 깊은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는 어떤 부모는 늘 그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

녀가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부

장애인 환자 위해 수화통역사 24시간 운영 필요

장애인 봉사활동을 하는 친구가 최근에 병원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이 친구는 봉사활동을하면서 수화를 익히기 시작해서, 이제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의사소통은 가능한 수준이 됐다.

그가 얼마 전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있던 때, 마침 한 환자가 급하게 실려 들어 왔다고 한다. 그저 '또 한 명의 교통사고 환

모, 자녀가 아파서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연 등 부모는 온통 자녀를 보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해바라기처럼 보인다.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젠가 원로 교무님 한 분이 부모에게 자

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

나는 빛 받으려 온 자녀이고 또 하나는 빛 갚으려 온 자녀라고 한다. 빛 받으려 온 자녀는 부모가 일생을 짊어진다. 정신, 육신, 물질로 바치기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궁핍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빛 갚으려 온 자녀는 그 자녀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녀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녀와 깊은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는 어떤 부모는 늘 그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

녀가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부

모, 자녀가 아파서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연 등 부모는 온통 자녀를 보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해바라기처럼 보인다.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젠가 원로 교무님 한 분이 부모에게 자

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

나는 빛 받으려 온 자녀이고 또 하나는 빛 갚으려 온 자녀라고 한다. 빛 받으려 온 자녀는 부모가 일생을 짊어진다. 정신, 육신, 물질로 바치기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궁핍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빛 갚으려 온 자녀는 그 자녀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녀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녀와 깊은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는 어떤 부모는 늘 그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

녀가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부

모, 자녀가 아파서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연 등 부모는 온통 자녀를 보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해바라기처럼 보인다.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젠가 원로 교무님 한 분이 부모에게 자

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

나는 빛 받으려 온 자녀이고 또 하나는 빛 갚으려 온 자녀라고 한다. 빛 받으려 온 자녀는 부모가 일생을 짊어진다. 정신, 육신, 물질로 바치기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궁핍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빛 갚으려 온 자녀는 그 자녀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녀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녀와 깊은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는 어떤 부모는 늘 그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

녀가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부

모, 자녀가 아파서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연 등 부모는 온통 자녀를 보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해바라기처럼 보인다.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젠가 원로 교무님 한 분이 부모에게 자

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

나는 빛 받으려 온 자녀이고 또 하나는 빛 갚으려 온 자녀라고 한다. 빛 받으려 온 자녀는 부모가 일생을 짊어진다. 정신, 육신, 물질로 바치기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궁핍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빛 갚으려 온 자녀는 그 자녀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자녀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자녀와 깊은 갈등이 있어 힘들어하는 어떤 부모는 늘 그 자녀를 원망하고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자

녀가 산고 끝에 아기를 낳았다고 기뻐하는 부

모, 자녀가 아파서 걱정하는 부모의 절절한 사연 등 부모는 온통 자녀를 보며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해바라기처럼 보인다. 이런 사연을 소개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해 본다.

언젠가 원로 교무님 한 분이 부모에게 자

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하

나는 빛 받으려 온 자녀이고 또 하나는 빛 갚으려 온 자녀라고 한다. 빛 받으려 온 자녀는 부모가 일생을 짊어진다. 정신, 육신, 물질로 바치기만 하면서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궁핍한 상황에까지 이른다. 반면에 빛 갚으려 온 자녀는 그 자녀로 인해 가정이 화목해지고, 삶의 희망이 생기고, 때로는 몸도 마음도